서울YWCA

2022 9/10 vol.620

사단법인 서울YWCA

2015. 7. 30

광복 70주년-대학생 · 청년 평화리더십캠프(2015년)

대학생 · 청년 평화리더십캠프

서울Y는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갈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청년활동기금지원사업으로 대학생 · 청년 평화리더십캠프를 열고 있다.
철원(2015)을 시작으로 백두산 · 연변(2016), 연해주(2017), 큐슈(2019), 북 · 중 · 러 접경지(2020)
탐방을 통해 통일에 대한 편견을 깨고 다양한 담론을 쌓으며
평화통일을 위한 청년의 주체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캠프는 8월 2일 '분단을 마주하고 희망으로 평화를 열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관련기사 8-9면)
이밖에도 서울Y는 라운드테이블, 토크콘서트, 인식개선캠페인 등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평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스브릿지 평화통일캠프, 안중근 단지동맹기념비(2020년 2월)

대학생 · 청년 큐슈 평화캠프(2019년 3월)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YWCA
vol.620
2022년 9·10월호

9월 공동기도

하나님, 세상 도처에서 들려오는 신음 소리 때문에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예언자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도무지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좌절, 슬픔, 고통, 절망을 거쳐
하나님 찬양으로 귀결되는 드라마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스러지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아멘

10월 공동기도

하나님, 주님께 바칠 것이 너무 적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부지런히 몸을 놀리긴 했지만 우리 수확은
서부렁하기만 합니다. 책망이 두려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해주십니다.
그 가없는 사랑을 받아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섭니다.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4 **나를 살리는 말씀**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성경은 정말 멋져요

6 **Y 이슈**
서울YWCA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

8 **현장 속으로**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캠프

10 **환경과 여성**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불온한 동맹

12 **예술과 여성**
청기사파 화가 가브리엘레 뮌터와 두 남자

14 **서울Y 소식**
7 · 8월 뉴스
9 · 10월 행사안내
9 · 10월 캘린더

20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온라인 커뮤니티 속 여성 폭력

21 **특별행사**

22 **2022 회원증모 명단**

26 **기독시민아카데미**

27 **후원 소식**

28 **내일빛 캠페인**

32 **알림터**

34 **창립 100년 비전**

36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홍애시덕,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

〈서울YWCA〉 2022년 9 · 10월호
통권 제620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배은경
편집위원 이재숙 인 미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seoulywca
검색창에 서울YWCA
blog.naver.com/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육순연
소비자환경위원회 위원

1979년 가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이셨던 모교 문인숙 교수의 추천으로 서울YWCA 사회문제부와 인연을 맺었다. 모든 업무와 행사를 예배로 시작하는 Y와의 만남은 기쁨이고 행운이었다. 당시 사회문제부 주요사업은 소비자 고발 처리였는데, 한국소비자운동의 대모라고 불리는 정광모 위원장님은 소비자운동은 인권운동이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잠언(20:10)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하셨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Y에서, 더욱더 오직 말씀에 의지하게 된 계기는 독산동 근로여성회관 관장 시절이었다. 1977년에 세워진 근로여성회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직업훈련기관으로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태가 된 곳이다. 어느 날 새로운 직종개발에 대한 부담감과 기관 재정에 대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어 "너무 벅찬 일을 맡겨주셨다"고 투정 부리며 기도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주셨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편 42:5)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나를 위로해주시고 오히려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뒤로도 말씀은 지쳐서 넘어질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도닥여준 버팀목이었다.

2009년 1월, 서울YWCA 본부에서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기도 동역자였던 신앙의 선배님들과 말씀 가운데 사랑을 나눈 동료들이 있었다. 이 특별한 신앙공동체에 감사하며 퇴직 후 선교부, 시설운영사업팀을 거쳐 소비자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교회에서도 기도팀장, 여신도회장, 교회 예배안내자로 봉사하며 남보다 멋진 노년을 보내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시편 131편을 묵상하게 되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시편 131:1-2)

30대에 시작한 Y 활동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70대에 들어선 이제서야 비로소 철이 드는 것 같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내 맘을 환히 들여다보시고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말이다. 덕분에 오늘도 나는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서 평온을 향해, 겸손을 소망하며 한 걸음 내딛는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을 읊조리며!

성경은 정말 멋져요

임온유
어린이회원
서울영본초등학교 5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5-17)

그림_ 임온유

나의 여름방학 첫 번째 계획은 큐티 꼬박꼬박 잘하기이다. 큐티는 'Quiet Time'이란 뜻으로 주로 기도와 묵상, 성경 읽기를 하는 시간이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같아서 좋아하는데 큐티를 할 때마다 성경의 대단함을 느낀다. 큐티책 이름은 「큐티 프렌즈」. 7 · 8월호는 마태복음을 다루고 있다. 가장 기억이 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28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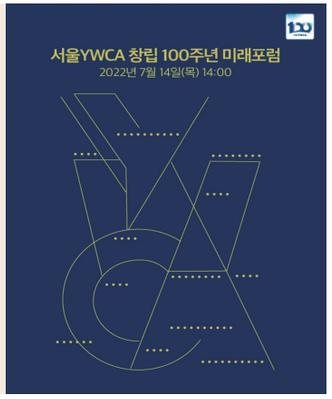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25-28)

여자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개 이야기를 꺼내고, 여자도 개 이야기로 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더니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었다. 이해가 안 가서 읽고 또 읽고 몇십 분을 생각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서 엄마께 여쭤보았다. 엄마는 그 여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빗대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의 절대 능력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다.

그 뜻을 알고 나니 성경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성경에는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까? 성경에는 총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며 무슨 행동을 할까?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오늘도 나는 큐티를 한다.

서울YWCA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

변화하는 공동체 패러다임 속 기독여성공동체 지속가능성 성찰



서울Y는 7월 14일 '서울YWCA 기독여성시민운동 100년,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다시 공동체를 외치다'를 주제로 〈창립 100주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선덕 이사와 이송학 청년회원의 공동진행으로, 유한킴벌리 포용과 다양성 부문 최고책임자였던 김혜숙 고문,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이현아 활동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장근지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100년간 지속해온 서울Y 기독여성시민운동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시사점을 짚어보고, 초개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독여성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은 공동체성의 전환기

포럼은 '공동체'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작됐다. 장근지 연구원은 공동체는 '무리'와는 다르다며 무리가 소문을 듣는 자라면, 공동체는 소리를 듣고 따르는 이들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소리는 가치, 진리, 생명, 평화와 같은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이현아 활동가는 환경보다는 '생태'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은 내가 중심, 다른 것은 주변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생태에 주목하게 되면 각각의 것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혜숙 고문은 공동체를 '우물'에 비유하며 마을 안의 우물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듯 기업에게도 공동체는 함께 생존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동체는 과거보다 확장된 의미의 '생존'이라고 정의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각자도생'에 대해 그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생명을 책임져줄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라며, "그러나 과거 공동체가 약화됐다기보다는 '공동체의 전환 시기'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현아 활동가가 동감을 표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연결되고 싶어 하는데 이 연결이 부담스럽거나 배제 또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피하게 된다고 했다. 앞으로 공동체가 사람들의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집중하고, 그 연결 방법을 찾는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근지 연구원도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현재 공동체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상처받아 잠시 외면한 것이지 공동체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소중하기에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며 서로의 세계가 충돌하는 상황에도 맞춰가려는 '말 걸기'를 시도한다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할 것이라 예상했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전하려는 가치 고민

김혜숙 고문은 '각자도생'이란 말 자체도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편견이고,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뿐이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치를 고민하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에 대처하는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이송학 청년은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시간에 먹는 '혼밥'처럼 원하는 공동체에서 원하는 만큼 참여하는 선택의 자율성에 대한 측면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 존속을 위해선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읽는 시각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현아 활동가는 "청년은 조직의 장식품이나 조직이 잘 되어서 갖는 재산 같은 존재가 아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이를 지원한다면, 이 사회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새로운 100년을 위한 키워드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제시되었다. 공동의 목표만이 아닌 다양한 개개인의 삶을 포용하며 그만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때 서로 연결하도록 돕는 것이 미래 공동체 지속가능성의 방향이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정선덕 이사의 설명을 따라 서울Y 100년 역사도 잠시 짚어보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강습반, 최초 시간제 가정부 훈련, 최초 민간 소비자위원회 구성, 최초 여성직업훈련기관 근로여성회관 건립, 최초 아나바다 운동 등 최초를 거듭하는 서울Y 발자취에 감탄과 칭찬이 쏟아졌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100년, Y 밖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서울Y가 넓은 품을 가진 맏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근지 연구원이 새롭게 제시한 YWCA. Yard Wave Creative Amen! 서울Y가 하는 활동에 사회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날을 꿈꾸며, 새로운 100년에도 서울Y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독여성시민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갈 것을 다짐한다.Y

왼쪽부터 서울Y 정선덕 이사, 이송학 청년회원, 김혜숙 유한킴벌리 고문, 이현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활동가, 장근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캠프

‘분단을 마주하고 희망으로 평화를 열다’

서울Y는 8월 2일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캠프를 서울에서 열었다. 현장 중심의 체험캠프로 역사전문가와 함께하며 역사, 통일, 평화, 민주주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평화통일 리더십캠프단이 처음 찾은 곳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일제강점기 자유와 평화를 염원했던 선인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광복의 빛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라는 글귀는 주체적인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염원을 갖게 했다.
‘용산공원’은 6.25 한국전쟁 상징 중 하나로 식민과 냉전,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장소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난 120여 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그곳의 일부가 올 6월 한국 정부로 반환되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용산공원이 화해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끝으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명동성당’을 돌아보며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번 캠프는 장소별 피스 액션(Peace Action) 미션 수행과 신주백 역사전문가(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장)의 해설로
그 의미를 더했다. 현장 탐방을 마치고 서울Y 회관에 모인 캠프단은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명예교수)의 특강을 듣고
워크숍을 이어 갔다.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언제 어디서든 평화바라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Y

1

2

3

4

1 2 신주백 역사전문가와 함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탐방
3 이장희 교수의 평화통일운동 특강
4 피스액션 퀴즈
5 발표의 시간 ‘자유와 평화, 6 · 25와 한민족, 민주주의’ 피스액션 발표

5

참가소감

청(소)년

- **장종수** 대학교 4년
  알찬 기행!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희경** 대학교 3년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사는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 **김민영** 중학교 3년
  대면으로 현장 탐방을 가서 좋았다.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만난 듯 반가웠다
- **김민서** 중학교 3년
  잘 몰랐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
- **송지후** 중학교 1년
  계속 장소를 바꿔서 캠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캠프 기획팀

- **박사랑** 피스톡톡, 중학교 3년
  장소별 피스 액션에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줘서 감사했다. 알지 못했던 역사 사실을 해당 장소에서 상세한 해설로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
- **윤종필** 피스톡톡, 대학교 4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장소마다 역사와 분단과 연결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흥미를 가지고 피스 액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 **박유미** 피스톡톡, 대학교 2년
  초등학생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해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되었으나 ‘평화’를 중심으로 함께 모인 우리는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 **양진화** 평화운동팀 부장
  ‘평화’와 ‘통일’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느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오랜 분단상황으로, 평화에 둔감해진 우리를 느끼며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불온한 동맹

구미정
기독교 인문학자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이은교회 목사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창세기 4:16)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창세기 4:17) 성서는 도시의 기원이 가인에게 있다고 말한다. 도시에 가인의 죄악이, 가인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다고 폭로한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야곱의 딸 딤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성폭행을 당한 것도 죄다 도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성서가 도시를 바라보는 눈은 절대 곱지 않다.

도시가 생겨나면서 문명이 건설되었다. '문명'의 영어 단어 '시빌라이제이션(civilization)'의 다른 뜻은 '도시화'이다. 도시(city)와 문명 모두 라틴어 '시비타스(civitas)'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둘은 샴쌍둥이라 할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도시문명의 출현이 농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본다.

참혹한 농업혁명의 결과

인류가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수렵과 채집으로 생존을 이어갈 때는 그런대로 평등했다. 남자들이 운 좋게 멧돼지를 잡아 오는 날이면 고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잠시 유세를 떨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여자들이 딱히 위축되지는 않았다. 남자들이 동굴집을 떠나 있던 사이에 나무 열매를 따 먹거나 야생초를 뜯어 먹으며 생계를 꾸린 것은 순전히 여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 인류의 생활방식은 그야말로 건강했다. 비타민이 풍부한 각종 '베리(berry)'들을 주로 먹었고, 어쩌다가 단백질을 보충했으며, 온종일 걸어 다녔다.

강가로 내려가자고 권한 쪽은 십중팔구 여자일 것이다. 남자들이 멧돼지를 잡기보다는 멧돼지가 남자들을 잡아먹기가 더 쉬우므로, 남자 씨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했을 테다. 이 설득을 하는 데 오천 년쯤 걸렸다(원래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 결국 인류는 강가로 내려왔고, 드디어 밭을 일궈 작물을 키우게 되었다.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무엇보다 남자들이 장거리 여행을 떠나지 않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식단도 채식 위주에서 탄수화물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농업혁명의 결과는 참혹했다.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다른 지역 사람들의 왕래가 잦을수록 이름 모를 질병의 목록은 늘어만 갔다. 그런 한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이나 관료, 군대 따위의 조직이 있어야 했다. 도시국가가 많아지면서 툭하면 전쟁이 터졌다. 국가들끼리 연맹을 맺고 제국을 형성하여 다른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무너진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잡아다 노예로 부리면 되니, 전쟁이야말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장사가 아닐 수 없었다.

달라지지 않는 여성의 지위

일 년 내내 밭에 붙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다. 농업혁명의 이득이 농부에게 돌아가지 않은 게 문명의 역설이다. 오히려 땅을 소유한 지주와 지주의 소유권을 지켜준 관료, 관료에게 힘든 노동을 면제해준 대신에 절대 충성을 요구한 왕족 등 엉뚱한 계급이 부를 장악했다. 이에 따라 사회질서 역시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모해 갔다. 농사를 짓기 위해 오로지 육체적 힘에만 의존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요긴하므로 '남존여비' 현상이 자리잡게 되었다. 군인, 관료, 왕의 자리는 모조리 남자가 독식하고, 여자에게 허용되는 일이 드물었다.

산업혁명 이후에도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공장형 노동이 자리 잡았다고 해서 공장 노동자가 살기 편해졌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와 경험이 말해준다. 여자의 지위도 똑같다. 공장에 나가는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남존여비'가 뒤집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일하는 여자들을 향해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난만 커졌을 뿐이다. 장담하건대, 그 일터가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연구실이든 메타버스든, 다시 말해 산업혁명이 2차, 3차, 4차, 아무리 진화를 거듭해도 여자들의 지위는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자본주의를 밑절미로 한 문명의 생리 자체가 가부장적이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의 이득이 농부에게 돌아가지 않은 게 문명의 역설이다. 사회질서 역시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모해 갔다. 농사를 짓기 위해 오로지 육체적 힘에만 의존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요긴하므로 '남존여비' 현상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늘을 어떻게 사고팝니까?"

자본주의는, 쉽게 말해, 돈이면 다 된다는 주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주의다. 이런 생각은 지구 위 모든 생명체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사람 이외의 동물은 돈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돈의 가치는 사회적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돈신이 이토록 맹위를 떨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조개껍데기로 대신하든, 은이나 주화 또는 지폐를 사용하든 돈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늘 존재했다. 그러나 시장이 물물교환의 형태로 돌아가던 시대를 자본주의 체제라 말하지는 않는다. 그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지금의 모양을 갖게 된 데는 근대적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큰 역할을 했다.

시애틀 추장의 말을 곱씹어 보자. 그는 미국 워싱턴주에 살았던 원주민 지도자로, 19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이른바 '인디언' 연맹으로부터 땅을 사려고 할 때, 이런 연설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늘을 어떻게 사고팝니까? 우리에게 땅을 사겠다는 생각은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맑은 대기와 찬란한 강물이 우리 것이 아닌 터에 어떻게 그걸 사겠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나무껍질 속에 흐르는 수액을 우리 몸의 혈관처럼 여깁니다. 곰, 사슴, 독수리, 모두가 우리의 형제올시다.…" (다음호에 6편이 이어집니다)

* 창립 100년을 맞아 YWCA 정체성인 기독여성에 주목하고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신학과 윤리를 다시 바라보며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모색합니다

구미정 교수는 일상의 소소한 풍경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 찾기를 즐긴다. 진지하고 심각한 신학 풍토에 자유롭고 경쾌한 이야기로 생명을 수놓아가는 기독교 인문학자. 지은 책으로는 「한 글자로 신학하기」, 「두 글자로 신학하기」, 「그림으로 신학하기」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교회 다시 살리기」, 「작은 교회가 답이다」, 「생명의 해방」 등이 있다.

청기사파 화가
가브리엘레 뮌터와 두 남자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가브리엘레 뮌터
Gabriele Münter
1877. 2.19 – 1962. 5.19

가브리엘레 뮌터는 개성 있는 독일 표현주의 화가로 바실리 칸딘스키, 프란츠 마르크, 아우구스트 마케와 함께 청기파의 창립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 말까지 동료 남성 화가들에 비해 덜 거론되었으며,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청기사파의 증인 정도로 취급되었다. 또한 뮌터는 그의 작품에 대한 평가보다 칸딘스키의 연인으로 세간에 더 알려져 왔다. 청기사파(青騎士派 : Der Blaue Reiter)는 1911년에 칸딘스키가 발간한 잡지 이름을 따서 1912년 결성되었으며 청색과 녹색 계열의 푸른색을 즐겨 사용하고 표현주의적 색채가 강한 작품을 선보였다. 1차 세계대전 발발로 칸딘스키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고 참전한 마르크와 마케가 전사하면서 해체되었다. 그들 중 칸딘스키는 추상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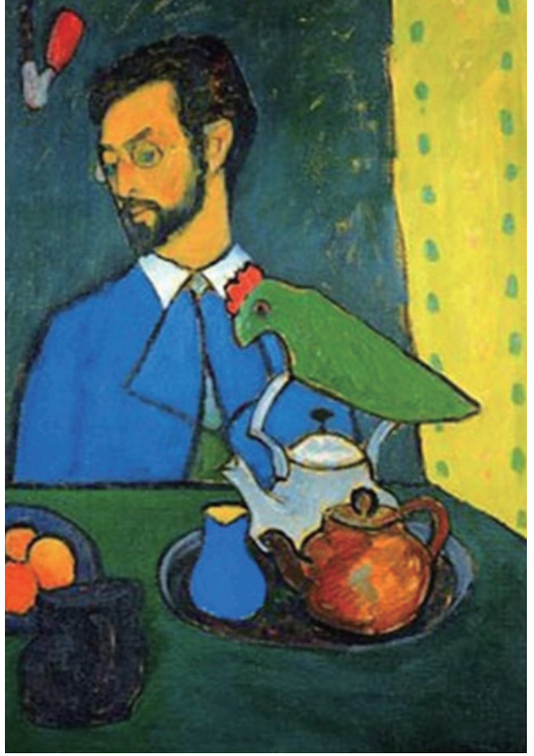
독일 출신의 여성 예술인

가브리엘레 뮌터는 1877년 독일 베를린에서 궁중 소속 치과 주치의인 아버지의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풍족한 소녀시절을 보냈다. 그는 승마, 스케이트, 작곡, 무용을 배웠고 틈틈이 독서와 오페라 관람도 병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능을 나타낸 것은 그림이었다. 당시만 해도 화가는 남성의 영역이었으며, 아무리 재능이 있는 여성이라도 결혼하면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창조성을 포기하고 아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그러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한 감수성을 가진 가브리엘레는 미술대학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국립미술학교에서는 여학생을 받지 않아 20세에 뒤셀도르프에 있는 사립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학비가 비쌌지만 기대만큼 예술적 자극이 없어 고민할 즈음 큰오빠와 아버지에 이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언니 에미와 함께 1898년에 미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한다. 에미는 동생을 위해 카메라를 사주었는데 이때부터 가브리엘레에게 사진은 기록의 수단이 아니라 예술의 도구가 된다. 뮌터는 하나의 주제를 사진, 드로잉, 그림, 목판화 등으로 확장하여 작업했는데 칸딘스키도 그의 사진작품을 단순한 기록의 저장이 아닌 예술성 있는 작품으로 평가했다.

뮌터와 바실리 칸딘스키

뮌터가 칸딘스키를 만난 것은 독일 귀국 후 칸딘스키가 뮌헨에 세운 플랑스 미술학교에 1901년 입학하게 되면서이다. 칸딘스키는 이미 사촌 아냐와 결혼한 11살 연상의 유부남이었지만 1902년부터 1916년 완전히 헤어질 때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한다. 사실 두 사람은 성격도, 그림을 추구하는 방식도, 연애 방식도 달랐다. 칸딘스키는 내성적이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림에서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 그림에 음악적 감성을 담은 추상화를 주로 그렸다. 반면 뮌터는 열린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로 호기심이 많았고 주변 인물이나 사물 등 대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형태를 단순화시키며 강열한 색상의 구상화를 그렸다.

1910년 작 「차가 놓인 탁자 앞의 칸딘스키」는 44세의 칸딘스키를 보여준다. 수염을 기르고 살짝 고개를 돌려 아래로 시선을 향한 모습은 조용하고도 내성적인 그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기사파의 특색이 드러나며, 오른쪽 노란 벽지로 그림에 생동감을 더했다. 단순하고 강열한 색으로 표현주의 성향과 함께 사물마다 검정 테두리를 둘러 야수파의 영향도 보이고 있다. 뮌터는 칸딘스키를 사랑했고 그와의 결혼을 고대했지만 칸딘스키는 두 사람의 관계가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도 조심했고, 여러 번 혼인 약속만 하고 함께 생활하다가도 훌쩍 떠나버리기를 반복했다. 뮌터는 자신 돈으로 무르나우에 구입한 주택에서 칸딘스키와 긴 세월 동안 함께 작업하고 세계각지를 여행하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적 동반자로 행복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국 칸딘스키는 아내와 헤어진 후 러시아에서 장군의 딸인 니키와 결혼한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작업하며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원했던 뮌터가 바우하우스 교수가 된 칸딘스키에게는 부담되었을 수 있다. 그와 달리 니키 칸딘스키는 오로지 내조하는 아내로서 자처하였기에 칸딘스키는 결국 니키를 택했다.



가브리엘레 뮌터 「차가 놓인 탁자 앞의 칸딘스키」 1910. 하드보드지에 유화, 68x47cm, 예루살렘 이스라엘미술관 소장

뮌터와 요하네스 아이히만

혼자가 된 뮌터는 1928년에 새로운 동반자로 「칸트의 경험 개념」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미술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요하네스 아이히만을 만나 결혼한다. 그는 뮌터보다 9살 연하로 뮌터 미술의 비평가로 재정의 조언자로 함께했다. 무르나우의 집에는 나치로부터 퇴폐미술가로 낙인찍힌 칸딘스키의 작품들이 남아 있었는데 아이히만과 뮌터는 나치로부터 작품들은 보호하기 위해 작품들을 비밀 지하실에 보관하고 정리 · 연구했다. 1949년 청기사파에 대한 회고전이 열리고 국립미술관이 뮌터의 작품을 처음으로 구입했다. 뮌터는 1957년 80회 생일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칸딘스키의 작품을 뮌헨시에 기증했다. 1950년을 기점으로 뮌터의 작품들은 새롭게 평가되었고, 그는 사랑하는 두 남자와 함께 했던 무르나우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1994년에는 유럽의 마흔 살 넘은 여성 미술가에게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인 가브리엘레 뮌터상이 뮌헨시에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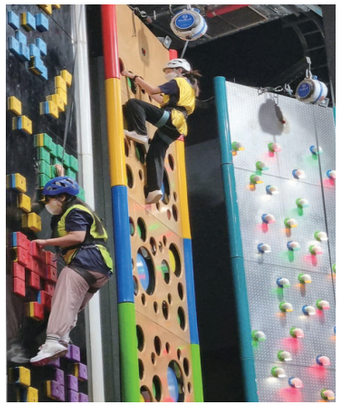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 시즌2

서울Y는 지난해에 이어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올해도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몸 건강 challenge(챌린지)-셀프디펜스 교실'이 7월 29일 서울Y 대강당에서 열렸다. Y-틴 청소년들과 스쿨오브먼트 최하란 대표, 정건 강사가 함께했다.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시작으로 셀프디펜스의 정의부터 경계설정, 순발력, 정당방위 등에 대한 이론 교육에 이어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을 연습하며 위험 상황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방어하고 지키는 방법을 익혔다.

8월 2일에는 몸 건강 challenge(챌린지) 2탄, '스포츠 체험활동'이 하남 스포츠몬스터에서 진행됐다. 클라이밍, 양궁, 로프챌린지, 짚라인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도전정신과 협동심을 키우는 팀빌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가을에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마음 건강, 영양 건강을 위한 챌린지가 펼쳐질 예정이다. 서울Y는 이 땅의 모든 여성 청소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응원하며 앞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등포

아동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28일 '아동돌봄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이 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으로 5년 이내 폐업한 여성 소상공인이 베이비 시터와 산전산후보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수료한 9명은 아동 돌봄 분야로의 전직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강남

도담도담 마을학교 '에.술.이'

강남청소년수련관은 5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8주간 'ECO+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청소년 그림책테라피-에.술.이'를 진행했다. 평일(화 · 목) 2개 반, 주말(토) 6개 반, 총 6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림책테라피 활동 외에도 숲 체험, 만들기, 글쓰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에.슬.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누리봄

뮤지컬 문화체험

누리봄은 8월 6일 KRX 국민행복재단과 함께 문화체험 행사를 열었다. 누리봄 입소자, 주거지원 입주자, 자조모임 참여자 총 21명이 대학로에서 뮤지컬 '빨래'를 관람했다. '비 오는 날'을 살아가는 '우리', 다른 듯 닮아 있는 '우리'의 이야기로 어둡고 막막한 시간을 담담히 그린 뮤지컬 〈빨래〉는 2005년 초연 이래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뮤지컬이다. 담백하지만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픈 마음을 꾹 짜서 널어주는 듯한 위로를 전했다.

노원

연극놀이지도 활동가 양성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14일 여성가족부 직업훈련교육 '연극놀이지도사'과정수료식과 더불어 수료공연을 진행했다. 2개월 동안 총 188시간의 교육을 통해 15명의 지역사회 연극놀이지도사를 양성 · 배출했으며 수료 후에는 연극놀이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 배우, 연극 연출가로 활동할 예정이다.

봉천

청소년 진로캠프 '진로원정대'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28-29일 1박2일간 관악구 거주 중학생 17명과 함께 강원도 영월로 진로캠프를 다녀왔다. 동강 래프팅 체험, 별마로천문대 견학에 이어 영월의 문화예술기획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와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생각의 폭을 키웠다.

이번 캠프는 관악구와 영월군의 지역연계사업으로,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함께 하반기에는 청소년 진로독서, 직업체험활동 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서울Y는
창립 100년을 맞이하여
중보기도회를 엽니다

- **일시** 9월 22일(목) 11:00
- **주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 **문의** 02-858-4514

- **일시** 10월 27일(목) 11:00
- **주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 **문의** 02-951-0187

창립 100주년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

- **일시** 10월 20일(목) 10:00-15:00
- **장소** 서울Y 회관 4 · 5층
- **문의** 02-3705-6005

*안전상 먹거리 코너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생활돌보미 교육생 모집

서울돌봄과살림은 신입 돌보미회원을 모집합니다.
교육 이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 회원은 취업까지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종	대상	교육일	교육비
가사돌보미	65세 이하 여성	9월 16일(금) 10월 21일(금) 10:00-18:00	3만원
다누리 가사돌보미	한국인과 결혼한 이민여성		
아기돌보미	63세 이하 여성		
세이프맘			
간병사	65세 이하 여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	9월 15일(목) 10월 27일(목) 14:00-18:00	4만원

- **신청** 교육일 3일 전까지 전화신청
- **문의** 02-3705-6013~4 / 02-3705-6071~2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 프로젝트 Better Life for Girls 시즌2

서울Y는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
여성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성 청소년 마음 건강 challenge(챌린지) 'YOUTH 마음탐험가'

- **일시** 9월 17일(토) 13:00-15:00
- **장소** 서울Y 회관 4층 대강당
- **대상** 14-19세 여성 청소년 150명
- **내용** 청소년 마음 건강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원인 · 해결방법 탐색과 또래 공유,
  자신의 장점과 역량 알아보기 활동 등

여성 청소년 영양 건강 challenge(챌린지) 'Y와 함께하는 즐겁고 건강한 식탁'

- **일정** 9-10월 중
- **대상** 여성 청소년 100명
- **내용** 3가지 테마별 밀키트로 만나는 영양 가득하고
  간편한 식사, 식사 조리법 및 인증 사진 온라인
  플랫폼 공유

문의 02-3705-6009

노원 신규 프로그램

과정	일정	교육비
ERP회계인사 전문가 양성	9월 1일(목) -12월 2일(금) (화목금) 10:00-13:00	10만원 (수료시 5만원 환급,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5만원 환급)
보험종무사무원 양성 (대상: 폐업(예정) 여성 소상공인 · 여성 배우자)	10월 25일(화) -11월 22일(화) (월-금) 9:00-18:00	무료 (수강료/교재비 포함)

- **문의** 02-951-0187

영등포 치과소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일정

이론교육 9월 20-22일(화-목), 29일(목) 14:00-18:00
현장실습 9월 23일(금), 26-28일(월-수) 9:00-18:00

- **교육내용** 치과 병 · 의원 업무 이해,
  진료실 · 대기실 환경 관리,
  치과 기구 소독법 · 위생관리 현장실습 교육
- **문의** 02-858-4514

북멘토링프로젝트에 함께할 북멘토를 기다립니다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매칭된 청소년의 퇴원 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CALENDAR 2022 9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 · 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도우미 · 간병사 14:00 · 피스톡톡 정기모임 (17일) 11:00 · 그린Y 정기모임 (17일) 13:00 · 싱크머니 정기모임 (17일) 13:00
5	6 위원회 재정부 11:00 행사분과 13:00 · 창립 100주년 기독시민아카데미 (매주 화) 19:30	7 · Y-틴 C.A (명지고) 14:10 · Y-틴 C.A (이화여고) 14:15 · 미디어 모니터단 회의(21일) 19:00	8	9 · 누리봄 홈커밍데이(~12일) 9:00	10 추석
12 대체 휴일	13 · 역대이사 모임 11:00	14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18:00	15 이사회 10:00 위원회 기도분과 13:00 회원모금분과 13: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4:00	16 위원회 강남Y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17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여성 청소년 마음건강 챌린지 13:00
19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 명예위원 모임 11:00	20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특별행사준비 17:00	21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2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1:00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 은하수 정기모임 19:30	23	24 · 신혼부부학교 10:00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 평화통일리더 양성교육(워크숍 4차) 10:00
26 위원회 봉천Y 11:00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29 · 실무자 교육 15:00	30	

CALENDAR 2022 10

월	화	수	목	금	토
					1 · 그린Y 정기모임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13:00
3 개천절	4 위원회 재정부 11:00	5 · 미디어 모니터단 회의 19:00	6	7	8 월례회·재교육 아기돌보미 · 산후조리사 10:00 요양보호사 13:00 가사도우미 · 간병사 14:00 · 청(소)년 평화 걷기 (철원 DMZ) 7:30 · Y-틴, 대학 · 청년YWCA 연대토론회 11:00
10 대체 휴일	11 이사회 10:00 위원회 기도분과 13:00 회원모금분과 13:00 행사분과 13:00	12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18:00	13	14	15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피스톡톡 정기모임 11:00 · 그린Y-온새미로 · 울력 Y-틴 회원멘토링 13:00
17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 역대이사 모임 11:00	18 위원회 노원Y 11:00 누리봄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9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회원활동팀 11:00	20 **창립 100주년 큰장날**	21 위원회 강남Y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 아기돌보미 10:00	22 · 키다리학교 정기모임 13:00
24 위원회 봉천Y 11:00	25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6	27 **창립 100년 중보기도회** 11:00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4:00	28	29

온라인 커뮤니티 속 여성 폭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젠더 폭력이 담긴 내용은 주로 댓글에서 나타났다. 젠더 폭력적 댓글은 여성의 사진이나 영상, 여성과 성적 관계에 대한 남성의 고민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주로 달렸다. 댓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내용이 모니터링 되었다. 폭력적 댓글에서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대상화 및 젠더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머, 스포츠, 게임, 쇼핑, 이슈와 관련해 다양한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자들이 '게시글'과 '좋아요', '댓글', '베스트 게시판' 등을 이용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서울Y는 인기 커뮤니티 6곳의 게시글 1,400건과 이에 딸린 댓글을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총 950건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차별 사례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었다. 성차별 요소가 있는 게시글은 하나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적 대상화와 같은 특정 성차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하나의 게시글, 댓글에 성적 대상화,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모두 담겨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양상들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 사례는 주로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고정관념이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공유하는 양상을 보였다. 경찰, 승무원, 간호사, 치어리더 등 특정 여성 직업인에 대한 성차별적 편견을 생산하거나 성적 대상화한 사례,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이 다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적 대상화는 주로 사진, 짧은 동영상 반복(움짤), 직접 그린 만화를 활용해 이루어졌다. 이미지를 사용한 성적 대상화는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확대해서 그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순간만을 짧게 편집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요소가 문제적인 것은 이미지를 활용한 여성의 성적 대상화 방식이 오로지 여성을 남성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전체에 영향 미쳐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차별 양상은 '폭력성'과 맞닿아 있다. 미국의 작가 리베카 솔닛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의 자신감 저해, 자유와 평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예외적인 것,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클릭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세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무수한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현실 속 여성의 위축과 연결될 수 있다. 폭력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자유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조롱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정리 **이지은** 여성운동팀 활동가

* 모니터링 대상 :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트래픽 상위 6곳의 커뮤니티별 게시글(댓글 포함) 총 1,400건
* 모니터링 기간 : 2022년 5월 12-26일

희망을 노래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1922-2022 100 서울YWCA
Precious Moment
서울YWCA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
소마트리오
바이올린 손인경
첼로 배일환
피아노 이민정
김소현 뮤지컬배우
11월 10일(목) 저녁 7시 정동제일교회 본당
문의 02-3705-6023
사단법인 서울YWCA

서울YWCA 새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간 5월 16일(월) – 7월 22일(금)
점수 6,043점(목표 7,000점의 86.3%)
회비 181,280,000원 (목표 210,000,000원의 86.3%)

단체상 1등 재정부 704점
2등 누리봄 382점
3등 시설운영사업팀 310점

특별상 재정부 누리봄 시설운영사업팀 청소년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강남청소년수련관 국제협력팀
여성참여팀 홍보출판팀 평생체육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팀

1,779명
16단체

정기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민아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인지 강일훈 강주현
강진희 강창석 강충모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고경혜
고광표 고동연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유나
고은경 고은비 고은정 고은정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현진 고흥애 고희자 고희준 공명주 공우재
곽동윤 곽미숙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범서
구수영 구연경 구오영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혁준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인숙 길종선 김경금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아 김경원 김경일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관옥 김관채 김광수 김귀숙 김규영 김규진 김기연
김기옥 김기환 김나영 김나은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건 김동은 김동현 김동형 김동희
김두회 김라엘 김랑순 김말녀 김명후 김문자 김문휘
김미경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미혜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희
김병호 김보라 김보미 김보민 김보현 김복자 김봉근
김봉희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리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진 김성혜 김세용 김세진 김소망 김소영 김소은
김소인 김소희 김수언 김수연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연 김순연 김순임 김순자
김순정 김승찬 김승현 김시은 김애주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자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주 김영해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민 김용숙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진 김윤나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김재성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구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현
김정화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용 김종운 김종진
김종하 김주나 김준경 김준희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얀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은
김지호 김지희 김 진 김진숙 김진숙 김진주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헌
김치백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진 김태한
김통범 김평배 김학희 김한나 김해정 김행미 김향점
김헌숙 김현경 김현경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빈 김형숙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양 김혜정 김혜진 김호정 김홍우 김화숙
김화자 김효숙 김효은 김희성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선화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상화 남연정 남윤경 남은희 남희숙
노남례 노미선 노수연 노승은 노정자 노혜환 노희수
당효성 동지현 류소리 류종철 류 혁 마초희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상규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명자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갑년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일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근희 박남주
박노영 박명윤 박명자 박문성 박미경 박미경 박미란
박미소 박미영 박병주 박상건 박상영 박상정 박상태
박선미 박선영 박선정 박선주 박성주 박성호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순예 박순주 박승호 박시윤
박신자 박신환 박양신 박영미 박영선 박영순 박외정
박용진 박우표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훈
박정희 박종인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현
박주희 박지영 박지영 박지훈 박 진 박진숙 박진실
박진용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박희숙 박희정 방윤옥 방윤우 방은영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윤주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정숙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미리 백민경 백민주 백성원 백순녀 백옥선 백은엽
백인성 백정금 백정화 백 준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미화 서반석 서빛나
서상희 서영미 서옥덕 서은경 서정순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춘자 서현옥 서현정 서효옥 석상화 석성욱
석영미 선점환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호숙 손소영 손승혜 손승희 손예림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선희 송세실 송욱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언
송하윤 송혜승 송효수 신경자 신동선 신동원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승주 신연식 신용자 신정욱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지혜 신청희 신충섭 신현미
신혜경 심경호 심재원 심정남 심정자 심혜영 안두환
안병수 안성원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신
안영철 안영호 안외순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주희 안지혜 안진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한나
안혜리 양기혁 양명옥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영애

양영호 양정은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경자 엄수길
여명진 염명경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소연 오아름 오연아 오영선
오영아 오은주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한 왕청식
용윤희 우수경 우승현 우영숙 우재하 우정희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유철 원혜숙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명숙 유문형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연숙 유예목
유은경 유은정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지현 유진선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교희 윤동연 윤동원 윤문노 윤미경 윤미소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수진 윤순민 윤은희 윤장범 윤재복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완 윤철웅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경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계숙 이광희 이규택 이금재 이기경 이기쁨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윤
이동헌 이명순 이명종 이명혜 이명호 이명희 이미숙
이미자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사랑 이상명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서현 이선덕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소진 이수미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순영 이순옥 이순천 이슬기 이승민 이승연 이승재
이승한 이승헌 이승희 이시현 이신현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리 이양출 이연서 이연아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영희 이예순 이예은 이옥경 이용숙 이원애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숙B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임제 이재강
이재건 이재경 이재옥 이재욱 이재정 이재천 이재혁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화 이정환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선 이지영 이지운 이지현 이지현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진영 이진이 이찬우 이창준 이창희
이채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이헌국 이헌순 이현미 이현심 이현아 이형숙
이혜경 이혜규 이혜영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진

이화란 이화정 이희남 이희전 인치남 임경희 임광택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남 임병일 임선미
임성은 임성준 임성희 임양수 임연수 임온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자 임정화 임정훈 임주경 임준호
임중현 임지은 임지현 임지현 임현정 임현주 임혜리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선희 장수용 장수용 장순복 장순종 장승화 장영랑
장용익 장윤정 장주연 장철승 장한수 장현주 장혜미
장혜영 장 훈 전덕기 전미덕 전민구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화 전유오 전윤숙 전은경 전은미 전은아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전혜인 정경문 정경미 정경옥
정경원 정동신 정명숙 정모아 정문옥 정미선 정민선
정상미 정상아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숙향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연수 정연우 정영롱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진 정은하 정재훈
정정순 정정애 정정일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창용 정한솔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혜윤 정혜진 정화자 제오복 조규성 조규원 조길수
조남억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미숙 조민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호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예은 조오영 조용선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민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진희
조하은 조혜성 조혜전 조호선 조홍신 주명애 주민숙
주소은 주영숙 주우철 주지성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송분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송화 채재호 채정림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민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민호
최 봄 최서래 최선미 최수경 최수희 최순자 최순태
최승동 최승미 최승민 최승아 최신지 최영실 최영아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형 최윤호 최은성 최은주 최재국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종인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경 최현경 최혜영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재희 하정미 하지혜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규철 한다정 한민희 한성우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아소 한예성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재희 한 정 한정신 한정우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현식 한혜정 함봉진
허경희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지웅 허철영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홍성희 홍수연 홍승연
홍시온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지애
홍진기 홍학희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미영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선영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숙 황용하 황윤희 황은경 황주혜
(주)시공디자인 양재2동어린이집 (주)제이티
중앙이엔씨 (주)체험왕 향기나무

일시 후원

강경자 강미영 강민정 강민정 강시은 강영애 강원경
강유미 경규선 계명의 계숙화 계정란 고유미 고정아
공유선 곽영숙 권상희 권순복 권순정 김경민 김경아
김경애 김경영 김경훈 김광미 김귀분 김내영 김다미
김명순 김무경 김문원 김미선 김미순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민경 김선미 김선숙 김선애 김세연
김수연 김수영 김숙희 김순선 김순자 김순희 김신애
김아람 김안식 김연순 김연주 김연주 김영란 김영란
김영미 김영미 김영혜 김오경 김옥섭 김용희 김은순
김은희 김은희 김인석 김인순 김인순 김점숙 김 정
김 정 김정리 김정미 김정순 김정실 김정애 김정원
김정자 김정희 김종애 김주숙 김준동 김지현 김초자
김추자 김행미 김현욱 김혜경 김혜선 김혜숙 김혜순
김효순 김효진 김효진 김희덕 김희선 김희연 김희원
김희정 김희진 나세영 남혜승 노은미 류혜란 최정희
문영미 문영순 문정숙 문현주 문혜원 민선영 박가은
박경은 박경희 박난영 박남영 박미라 박미령 박새영
박선영 박선영 박소영 박소현 박슬기 박신순 박아영
박연미 박영순 박영신 박영자 박영희 박윤희 박은숙
박은희 박일지 박정선 박정애 박정자 박주영 박준경
박지원 박진숙 박진실 박진옥 박진희 박춘화 박혜민
박혜숙 박혜영 박희연 박희진 방영선 배명숙 백경원
백수영 변현조 변혜경 서락원 서병연 서소라 서정숙
서혜원 석달수 석명선 선호정 성민숙 성순경 성지윤
성혜옥 손보화 송복남 송오엽 송원근 신동미 신민정
신영희 신창식 심미경 심정자 안대종 안미정 안미정
안선영 안지선 안지현 안진선 안혜정 양정자 엄원숙
염은주 오미영 오소연 오숙자 오순아 오순정 오은수
오정선 오조묘 오지혜 오희영 우미선 우정화 원영경
유경숙 유미라 유민지 유병숙 유승자 유에스더 유윤주
유정민 유희열 육명선 육우정 윤경숙 윤경임 윤다영
윤동춘 윤상숙 윤상은 윤상희 윤소정 윤수진 윤애경
윤영혜 윤옥균 윤우경 윤정은 윤지원 윤지은 이경재
이금주 이금향 이래완 이매우 이명은 이명희 이미숙

이미애 이미자 이봉희 이상희 이선형 이세미 이숙미
이숙영 이숙자 이순영 이순호 이순희 이승진 이시전
이애경 이어진 이연수 이영화 이예승 이은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재호 이재흔 이재희 이정란 이정미
이정미 이정순 이조우 이종순 이주희 이지연 이지은
이창숙 이추성 이춘열 이태숙 이푸음 이현숙 이현영
이형란 이혜선 이혜숙 이혜옥 이혜은 이혜준 이혜진
이화진 이희경 인 미 임경아 임다애 임지영 임진남
임현정 임혜준 장리선 장영례 장영원 장은숙 장종익
장혜숙 전경숙 전미님 전보연 전성자 전정민 전홍선
전회진 정덕교 정모아 정문옥 정보경 정애란 정영란
정옥재 정용희 정유경 정유진 정진영 정창순 정태원
정희영 제경자 제금자 조근엽 조남향 조선미 조아영
조영관 조영선 조은희 조춘식 조혜자 조혜진 주리애
주미령 주미향 주선경 진은정 진정현 차경숙 차경웅
차미라 차은미 차정미 차정민 천귀매 최명화 최성심
최양자 최연수 최영선 최운정 최운정 최윤정 최은경
최은정 최은정 최정현 최지현 최지혜 최희경 최희연
조인엽 하성은 하성자 하현숙 하현민 한상조 한영희
한은영 한정숙 한지연 한지연 한지영 한혜경 허미란
허미숙 허순금 허유인 허정은 홍서윤 홍은진 황금숙
황명자 황문숙 황소영 황영숙 황우상 황현숙

평생

김수민 문원호 백옥선 성시열 오순원 유수림 이은숙A
이지연 정하경 조규원 한명자

대학생

김경아 김도윤 김범준 김준우 김호준 민소정 박솔희
박정의 박준성 박채원 배윤정 배윤주 송예나 윤유희
윤유희 조성빈

Y-틴

민세영 배윤서 배윤지 송은율 안여진 오승빈 이동화
이슬기 이유진 이정석 이지안 이혜안 전하은 지서영
지서진 현태현

어린이

김세령 김세현 김주호 김지선 민세영 박시은 박주은
박주혜 박채은 송은별 진유진 현태주 홍지오

회우

강석민 고대연 권혁우 김성근 김우택 김재민 김태원
김형철 김황현 노병수 박종두 박주원 박희균 변승민
서동욱 서동환 서준교 서충석 신동원 신완철 안성준
안창락 엄용재 염병윤 염 정 유제천 윤해상 이강호
이 립 이상훈 이선욱 이승준 이용렬 이정훈 이종철
이충환 임태용 임 현 장경익 전정석 정영웅 정영재
정제범 조영흥 조용호 최대백 최대성 최성진 최영태
최 운 최홍규

기업 · 단체

(주)선한 (주)한배엔지니어링 H.I콘트롤 굿데이서비스
노무법인 길 더쎄븐파트너스 동성에프에스 유한회사
삼성전자 삼우상회(김해관) 수원스퀘어AK수원점
秀헤어샵(황미화대표) 심마팍 주식회사 에이스스퀘어경기광주
월드유니텍 주식회사 현대공조 노상윤 후마니타스아카데미

특별 후원

강해경 김양선 김옥란 김철규 나순복 문종숙 박혜리
박희원 백연숙 산들축산 손민수 손채린 손채아 양진명
양행옥 이기심 이명혜 이민정 이성자 이순자 이승미
이 행 정수경 최봉수 최현주 한아소 한현선 홍의숙

※ 명단에 누락된 회원님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705-6008

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독시민아카데미

환대와 평화를 묻다

올해로 창립 100년을 맞은 서울YWCA가 기독시민아카데미를 엽니다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살림의 영성을 깨웁니다
환대와 평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회 9월 6일(화)
정의 - 평화 - 연대의 세상을 꿈꾸며
"다같이 잘살기 위한 평화 공동체로 초대"
김 누 리
중앙대 독일어문학 교수

2회 9월 13일(화)
환대하는 영성으로의 부름
"차별 없는 샬롬의 공동체를 위하여"
김 혜 령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교수

3회 9월 20일(화)
살고 살리는 영성으로의 부름①
"아픈 지구와 고통 받는 공동체의 회복, 더불어 살아가는 살림의 공동체를 위하여"
구 미 정
숭실대 초빙교수·이은교회 담임목사

4회 9월 27일(화)
살고 살리는 영성으로의 부름②
"생명돌봄, 함께 살아감의 사회를 향하여"
구 미 정
숭실대 초빙교수·이은교회 담임목사

일시 2022년 9월 6일-27일 매주 화 19:30-21:00
방식 온라인 줌
문의 02-3705-6043
신청하기

서울YWCA는
1922년 창립 이래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평화·생명 세상 건설에 앞장서 온 기독여성시민단체입니다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돌보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7월

특별 후원

일시 후원

- **감리교 세계여선교사대회 후원** 여성참여위원회 황성연
- **장학금** 따뜻한나무장학금 박정희

도너월 업그레이드

- **Y-Friend Club**(1천만원 이상) 김정순 최수경
- **Y-Club**(5백만원 이상) 강민아 최 봄

일반 후원

강명희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곽민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병호	김상순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옥매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해정	김현경
김 형	김효신	나순복	민혜경	박대화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욱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양진화	염현경	오세연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월요꺼삐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명희	이미리	이애진	이옥희	이원희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임지영	장경미	장경세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성환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홍근표				

재능 기부

- 이경순(명예위원)
  2022년 7 · 8월 회보 '영화와 삶' 칼럼 기고

북멘토링 후원

김나은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은순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혜경	나순복	남은희	민혜경B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염미연
염현경	우영숙	월요꺼삐	유지현	이수미	이연배	이옥희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나미
조민형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후원 계좌 |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문의 02-3705-6041**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빛
서울YWCA
창립 100년 캠페인

(사)서울YWCA 창립 100주년 기금 후원

이웃의 내일을 밝혀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땐 작은 빛 하나에도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이웃의 내일을 밝혀주세요

서울YWCA 나눔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이 되어주세요

Y 기금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 자립준비 교육 (금융·진로·인문학교육 등)
- 1:1 멘토링 (정서적 지지·일상생활 가이드)
- 장학금·생활안정자금 지원
- 법률 자문 연계

W 기금
가정폭력피해여성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공동작업장 상시판매소 지원
- 가정폭력피해여성 직업훈련
- 가정폭력피해여성·아동 생활 지원

C 기금
기후위기 재난피해 빈곤노인 지원

- 혹한·혹서기 냉난방 물품, 전기·가스요금 지원
- 건강키트, 영양식사 제공
- 기후재난 긴급지원 (의료품, 생존기금 등)

A 기금
서울YWCA 후원

- 서울YWCA 고유 목적사업 후원 (여성인권·기후위기대응·청소년 지원사업·평화운동 등)
- 지속가능한 서울YWCA를 위한 후원

후원금 입금계좌 농협은행 317-2021-0710-91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34

캠페인 소개 영상 보기

내일빛 사람들

창립 100주년 기금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바로 가기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수놓는 내일빛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나눔으로 이웃의 내일을 밝힌 선한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 후원 전체 명단 (2022년 8월 20일 기준)

개 인

강민아	권도웅	김경화	김명희
김미현	김선덕	김선자	김숙자
김숙희	김순임	김양선	김영심
김영자	김우녕	김은희	김재신
김정순	김현일	김 형	김혜옥
나미정	민혜경	민흥숙	박두영
박미용	박순예	박위자	박정희
박진선	배은경	백향덕	송길례
양선희	오점희	우영숙	원영희
윤경임	윤상은	이강희	이경연
이명순	이숙현	이연배	이옥희
이유림	이인순	이종미	이주영
이필영	이해순	이행자	전현숙
정선덕	정수경	정영롱	조길수
조병성	조연신	조종남	차귀숙
최 봄	최수경	최화순	한정석
한혜영	홍근표	황성연	

단 체

- 꿈이있는교회
-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회
- 정동제일교회
- (주)다인정공
- (주)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 (주)오토젠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위원회

- 누리봄위원회
-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 여성참여위원회
-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 회원활동위원회

후원자 예우

- 후원증서(기부금영수증) 발급
- 고액후원자 감사패 증정
- 100만원 이상 후원자
  - 홈페이지 내일빛 사람들 등재
  - 후원감사 선물 증정
- 기부금액 서울Y 도너월 합산 반영

*** 7-8월 내일빛 사람들

김선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위원

"축! 서울YWCA
창립 100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힘차게 Go!Go!

김숙자 서울YWCA 명예이사

사랑하는
서울Y의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관으로 더
쓰임 받고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김현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부장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소소한
일상에서 기적을 깨닫게
합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
오늘과 내일을 밝히는 참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울YWCA
100년을 축하합니다

김 형 서울YWCA 증경회장

Y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영원히 견고히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서울Y 창립 10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미용 서울YWCA 본부 부장

서울YWCA와 100년
동안 동행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가슴
사무치게 고맙습니다.
빛으로 거듭나는 Y가 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백향덕 서울YWCA 이사

서울YWCA 100년을
축하합니다! 한 알의 밀알
정신으로 시작된
YWCA가 더 많은
한 알의 밀알들을 통해
열매맺어가길 소망합니다!

오점희 서울YWCA 본부 부장

서울Y 100년의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작은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는
YWCA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숙현 서울YWCA 역대이사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두움에 빛을
발했던 서울YWCA가
더욱 더 빛을 내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인순 서울YWCA 본부 부장

서울Y 창립 100년,
희망을 전하는 내일 빛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밝고 환한
사랑을 비추길 원합니다

이필영 서울YWCA 명예위원

창립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100년도
바른길로 사회를 밝히는
서울YWCA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정석 서울YWCA 역대이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다음 200주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성참여위원회

새로운 100년도 세상 모든 여성들의
내일에 빛이 되는 소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100년의 빛 모두어
내일을 환하게 비추리!

(주)다인정공

다인정공

서울YWCA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다인정공

(주)오토젠

autoGen
주·오토젠

서울YWCA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미래의 백년도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IOPE

193만 번의 경험,
눈으로 확인한 주름 개선 효과
레티놀 엑스퍼트 0.1%

*05년2월24일 ~ 22년01월31일 기간 동안 아리따움/마트/온라인 등 14개 채널 내 누적판매수량

회원 소식

이슬기 강남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팀장
8월 20일(토) 낮 12시 30분
더컨벤션 신사 그랜드볼룸에서 결혼

우재숙 명예위원
8월 21일(일) 부군상

평생회원

문원호
NYU 재학 중

백옥선
누리봄 관장

성시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회장

오순원
서울 공립 중학교 교사

이은숙
청소년팀 위원

이지연
엠베스트 · EBS 수학강사

정하경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과

조규원

한명자
서울노회 여전도협회 회장

서울YWCA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

우리나라 최초의 간병사 교육 · 양성 기관인 서울YWCA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전문적인 요양보호사를
어르신 댁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어르신
내 용	신체활동 · 일상생활 ·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간병 서비스
근무 시간	• 오전 · 오후(3-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 9-18시 (8시간) 출 · 퇴근 서비스 • 월-토 (24시간) 입주 서비스

※ 요양보호사 · 간병사 수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02-855-8826 / 010-2847-8826

'극단 촉' 동아리원 모집

서울Y 회원동아리 '극단 촉'에서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연극으로 나눔과 봉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02-3705-6034

깊어지고 길어지는 주름 꼬리의 솔루션
안티에이징의 기초를 바로잡다
에이지 포커스 프라임 링클 포 올 세럼 & 아이 포 올 크림
AGE FOCUS PRIME
Prime Retinoid™
advanced phyto pro-retinol
Wrinkle For All
Serum
with prime retinoid™
makes dry skin firm
ISA KNOX
AGE FOCUS PRIME
Prime Pro-retinol™
advanced phyto pro-retinol
Double Effect
Eye For All Cream
with prime pro-retinol™
makes dry skin firm
ISA KNOX
http://www.isaknox.co.kr
isaknox_official
이자녹스 공식 구매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창립 100년 비전선언문

1922년 서울YWCA 기독여성들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정의 · 평화 · 생명 세상을 건설하는 마중물이 되었다. 서울YWCA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를 돌보며 살리는 기독여성시민운동의 역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위기, 양극화, 사회갈등의 위기와 문명사적 전환기 앞에서도 서울YWCA는 시대의 위기를 돌파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 도전적 의지와 책임감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서울YWCA는 창립 100년을 맞아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여성과 함께 열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Y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 청년정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Y
W 기독여성의 확장성, 사회적 영성으로! 세상을 살리는 Y
C 생태계의 회복, 더불어 살아감으로! 세상을 살리는 Y
A 정의 · 평화 · 생명 세상, 꿈꾸는 여성들과 연대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Y

서울YWCA의 새로운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영성, 사회의 변화를 상상하고 만드는 운동성, 더 나은 세상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사회혁신과 변화를 위해 5대 목표를 수립한다.

하나, 기독교 정신을 사회적 언어로 소통하며 실천한다.
하나, 회원 · 시민과 함께 기독여성주의, 기후 위기대응, 평화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 변화를 이끈다.
하나, 서울YWCA 정체성 강화와 공유를 위해 중장기 고도화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다양한 사회문제와 이슈를 다룰 수 있는 포용적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하나, 세대, 성별, 지역 차이를 넘어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 처음학교로 자리매김한다.

서울YWCA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여성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며, 정의와 평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22. 1. 20.
사단법인 서울YWCA

2022년 서울YWCA 비전사업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서울Y는 1만명의 여성활동가와 함께 100개의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시작으로 2022년은 22개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평등을 넘어 평화로

-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가이드 제작
- 여성청년 글로벌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미얀마 여성 역량강화 프로젝트
- 북한이탈청소년 영어교육 및 평화리더십 프로그램
- Y-틴 평화아카데미
- 청소년 평화 걷기
-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평화 이야기마당
- 디아스포라 여성청년과 함께하는 평화의 밥상
- 시민건강교실 – 여성 생애주기별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적 삶으로

- 기후위기 대응 지구사랑 부부 챌린지
- 재소 청소년와 함께하는 '살고 살리는' 멘토링
- 서울YWCA 창립 100년 기금 모금 내일빛 캠페인
- NO 그린워싱! 기업 친환경성 평가 프로젝트
- 지구를 치유하는 가치 소비 확산 프로젝트
- 건강용품 소비자 안전 리포트
- Y-틴, 대학청년Y 회원 멘토링
- 돌봄과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2 서울YWCA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 22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 목회자를 위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 제작
- 교회 리더십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
- 기독시민아카데미 개설
- 생애주기별 여성을 위한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홍애시덕

Esther Hong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

(1892-1975)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다.
깨어있는 백성이 돼야 한다."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인 홍애시덕 선생.
이화학당 중등과, 대학과를 졸업한 후
이화학당 교사로 근무했다.
1920년에는 이화 7인 전도대를 결성하고
북쪽지역을 순회하며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다.
미감리교 여선교사들의 후원으로
1923년 미국 스카릿 대학 신학부에 유학,
1926년 졸업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목사가 되었다.

1923년 유각경, 최활란과 함께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를 조직하고
1927년에는 근우회 결성 준비에 참여했으며
기독교조선감리회여선교회 초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연합회 회장과 서울Y 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34년부터 일제강점기 말까지는 총무로,
해방 후에는 이사로 본회 발전을 위해 일했다.

기독교를 통한 여성의 권익옹호와 항일구국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77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이화 7인 전도대(1920)
뒷줄 좌측 첫 번째가 홍애시덕 선생.
처음엔 여름 전국 순회전도를 계획했으나
일본 경찰의 방해로 북쪽지역만 돌고 옥고를 치르게 된다.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y.or.kr	870-4400
스포츠센터	수영 · 헬스 · 피트니스 3705-603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www.ywcajob.or.kr	858-4514~5
돌봄과살림센터	가사돌보미 · 산후조리사 · 아기돌보미 3705-6013~4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간병사 3705-6071~2		강남청소년수련관	www.gangnamyc.or.kr	544-9725~6
	재가장기요양기관 855-8826		누리봄	www.bongchuny.or.kr	888-7983